

2022년 6월 26일 “예수님의 비유(3) 겨자씨” (마 13:31-32)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겨자씨와 나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미미해 보여도 상상을 넘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크기로 인해 별것 아니라는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낮은 계층의 목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선포하신 곳은 보잘것없는 촌이었습니다(마 4:17). 그리고 12 제자들도 사회적으로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병자들, 죄인, 창녀, 세리들 등 약한 사람들이 몰렸는데, 주님께선 사회 지도자들보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1:31).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2]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양적인 것과 더불어 내적 quality 도 좋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눅 17:6) 이것은 제자들의 용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눅 17:3-4).

어떤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 죄 짓고 일곱 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깃들어 겨자 나무와 같이 크게 됩니다.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23-4 억(세계 인구의 약 30%)이 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어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 나무와 같이 계속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깃들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생각과 잘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2. 나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는지 성찰해보세요. 나는 믿기 전 모습과 지금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